

국회씨리즈 3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

‘꺼병이의 꿈’ -오우리의 정치 20년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5대 국회의원출판기념회(권오을·김교공과 현감공제 35世)의 저서 “꺼병이의 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문표 대표최고의원, 이상득 국회의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의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대표, 오경의 전국회의원, 강민창, 류목기 전재경안동향우회회장, 오문에서는 권정달 총재, 권해욱 헌정회사무총장, 권경석 사무총장, 권병국 상주총회회장 등 안동출신 인사 100여명과 2,00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정옥임 의원의 사회로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진광불위의 정치인”이라는 말로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를 축하하며 20년간 선배로 지켜보아온 감회를 표현했다. “꺼병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모습처럼 성숙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상득 의원은 과거 ‘유세지원단장’으로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낙선 이후 유학하고 서민생활을 하며 겸손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제 20년의 정치경험을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어 꺼병이의 꿈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동이라는 민족의 혼이 담긴 도시에서 키워낸 정치인 권오을 총장을 언급하며 그간의 인연을 말했다. 도의원부터 시작해 20년간 정치를 해온 권오을 총장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드시 역할을 해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북고려대 동문이며 오랜 친구인 주성영 의원은 권오을 총장과 40년 우정을 기억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때의 권오을을 소개했다. 새만금사업에서 묻었던 타임캡슐 속 보물을 언급하며 안동에서 정치계의 타임캡슐에 담긴 보배, 정치인 권오을을 다시 한 번 꺼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정치를 함께 해 온 인연을 기억하며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를 훌륭한 정치인이라 칭찬하며 “꺼병이의 꿈”이 반드시 이뤄질 거대하다고 말했으며 이어 “책”의 추천으로서 조장욱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용락 안동대학교운영위원회장은 다섯 개의 장(章)과 52개의 구성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54세의 인간 권오을, 20년 경력의 권오을의 삶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 발간 인사말을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축사에서 짧은 시절부터 너무 능력을 많이 발휘해 지금은 가끔 꺼병이 모습도 보인다는 말을 들으니 과거의 정치여정을 다시금 들여다 보게 되며 어릴 때는 참 잘 나가고 뚝뚝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허점투성이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3선 마지막에는 안동에도 조금 소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많이 부족했다. 변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참 많이 깨닫고 반성했다. 2년간 백수로 쉬면서 서민으로 돌아가 공부하며 보내는 시간동안 ‘결국’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금 할 수 있었다. 책을 쓰면서도 아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출판기념회에서 귀빈들과 담소하고 있다.

최소한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 했지만 아직도 자랑만 하려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의 자신을 보며 “꺼병이의 꿈”이라는 제목을 참 잘 만들었다고 저서를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장 선거를 보며 느낀 생각은 30~40대 서민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50대에 국가를 이끌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참 미안했다. ‘허리띠 풀라보고 저축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세상, 힘겹게 공부해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나라’라고 부르짖는 30~40대 후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견해와 고민**으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공정한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가?’ 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따뜻한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는 것,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 기성세대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의도 ‘있는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법을 지켜야 이뤄진다. 경제도 나라에서 다 잘 된다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서민이 따뜻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현재에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양극화만을 재생산한다. 국민이 힘들다면 힘든 것이다.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에서 다시 정치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예로부터 ‘대동상상과 선비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도시인 안동’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내 고향 안동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키웠던 ‘한국정치의 도덕성 원형’을 찾아가려 한다. 이러한 안동의 높은 도덕성을 한국 정치에 접목하여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고 나라와 안동발전을 이루겠다. 신선하고 뚝뚝한 이미지를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20년을 하고 나니 54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신선한 이미지를 잃었다. 20년의 정치경력은 단단해졌고 54년 인생경험은 유연해졌다. 아직 젊기 때문에 34살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각오를 되새기고 3선 의원, 국회의원출판기념회, 상임위원장 등 20년의 정치경험을 살려 안동과 나라를 위한 정치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따뜻한 서민, 행복한 국민, 편안한 나라!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는 꺼병이의 꿈을 함께 하며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기념행사로 개그맨 심현섭의 토크쇼와 서강대 에일레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 정치 20년(3선) 주요 입법활동을 보면

주요대표입법활동

▲농가지원 : ①원산지표시제 ②농가부채문제 해결 ③농림수산물품질관리법 ④식품안전법 ⑤농촌진흥청 설립 ⑥농촌진흥청장 직제 개정

▲서민지원 : ①유가정부담금 부담이자 1조4천억 지원 ②자동차세 인하 ③휴대폰 전파사용료 폐지 ④신용 대서면과 유가 상한제 주장 ⑤난시정 TV수신료 부담금 지원 ⑥장기근속 경정공무원 근무 상한제 마련

▲지역문화산업 육성 : ①도산면 산림과학박물관 준공 194억원 ②생태숲 및 생태공원 90억원과 휴양림 조성비용 27억원(2002년) ③풍산, 풍천지역 배수개선사업예산 109억원 확보(2003년) ④윤흥동 산업인력관리공단 안동상설검정시험장 유치 ⑤풍산 고추종합처리장 및 고추공 동육묘장 설치 ⑥경북북부지역 LNG조공공급과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⑦안동독립기념관 건립 ⑧풍산읍 매곡 ⑨괴장리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유지 ⑩안동시성곡동일원에 체류형 복합휴양단지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3,314억원 확보(2006년) 등

▲교육시설확충 : ①2000년부터 서부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영남초등학교, 영남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②길주중 체육관, 안동중 시설개선 ③경안고체육관, 길원고기숙사, 성회고중축 ④풍산고기숙사, 방동대학교, 안동과학대체육진흥센터, 안동대 시설비, 실험실습비 등

▲앞으로의 비전 : ①한국정치의 신뢰문제는 도덕성회복에 있다고 판단. 지역 안동에서 한국 정치 도덕성의 원형을 찾고자 함 ②안동발전을 위한 정책적 비전마련에 노력 중이며 포럼을 열고 낙동포럼이 안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의 주제 아래 “물, 문화, 농축산업”에 대한 정기 합동포럼을 진행 ③하회탈춤, 누타리밧기, 차전놀이, 선유줄불놀이 등의 민속문화와 오랜 역사의 서원과 종택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보유수가 가장 많은 도시인 안동을 ‘문화교육특화도시’라는 개념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봄날 느낌이 있어 春日有懷

푸른 버들 그림인 양 맑은 별을 희롱하고
깊은 집 푸른 이끼 사립은 낮에 달려있네.
제비가 돌아와도 봄날은 적막한데
살구꽃은 떨어지고 부슬부슬 비 내리네.
마음은 고향 돌아가도 몸은 여래 머무니
꿈에 슬잔 마주해도 깨고 보면 아닌 것을
서울의 벗들이여 소식을 묻지 마소
십년간 강해(江海)에서 눈물 옷깃 가득하다.

綠楊如畫弄晴輝
深院蒼苔畫掩扉
燕子歸來春寂寂
杏花零落雨霏霏
心還舊國身猶滯
夢對清樽覺却非
京洛故人休借問
十年江海淚盈衣

초여름 촌거에서 잠에서 일어나 술을 앞에 두고 首夏村居 睡起對酒

땀집 처마 편히 누워 배가 자못 편안하니
세생들이 *효선(孝先)이라 비롯어도 버려두네.
온갖 일 회포 잊고 다만 꿈속 노닐고
백 년의 득의로움 슬지리뻘이로다.
배짚새 뽕나무서 우는 소리 들리더니
아래쪽 무논에서 김매는 모습 된다.
뜨락 가득 이끼 끼고 맑은 대낮늘어지니
은종일 책 베고서 잠을 자도 괜찮겠네.

茅簷偃臥腹便便
任使諸生笑孝先
萬事忘懷唯夢裏
百年得意是樽前
正聽布穀鳴桑樹
忽見春鋤下水田
苔蘚滿庭晴晝永
不妨終日枕書眠

소프라노 권혜령 귀국 독창회

영롱한 음색이 묻어나는 깊이 있는 음악의 연주자, 소프라노 권혜령의 귀국 독창회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8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소재 ‘금오아트홀’에서 주최 바움예술기획, 이화여대음악대학 동문회의 후원으로 음악애호가 및 학교선호배, 일반 관객, 친인척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독창회는 피아노 빈주에 정호정씨, 경원대 겸임교수)와 트럼펫 이창석씨(前 인천시 교향악단 객원수석)의 연주로 슈베르트 ‘미리암의 노래’ 등 여러곡을 열창해 ‘아트홀’은 숨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이면서 우렁찬 박수와 앵콜을 받기도 했다.

권혜령 소프라노는 권순호씨(權純浩·68·의성, 북아공과 37世)의 장녀로 이화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내에서는 이규도 교수에게 사사하였으며 미국 텍사스 오를라호마 연합지역 입상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1등을 했으며 고음악위크샵,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과 다양한 연주에 참가하여 완성도 높은 음악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헨델, 몬테베르디 등 다수의 고(古)음악 레퍼토리를 호연한바 있으며 현재에도 고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8시 금오아트홀

근반 개최된 권혜령 소프라노 귀국독창회는 ‘음악은 살아있다’는 흔한 명제를 관객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권오을 편집위원>

제12회 국제만화가대회



국제만화가대회에서 연설하는 권영섭 자원위원(왼쪽에서)

11월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2회 국제만화가대회에서 본보 권영섭 자원위원

원은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의 각 등과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과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갖고 작품 제작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편>

■ 권오을 국회의원출판기념회 걸어온 길

- ▲학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졸업
- ▲제 15, 16, 17대 국회의원(3선)
- ▲한나라당 총재 기획특보, 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경북도당위원장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사)포럼 ‘오늘’ 낙동포럼 고문, 영남대, 동국대, 서강대 객원교수(現)
- ▲국회 제25대 사무총장(現)

■ 수상경력

-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수상(1997~2001, 2004~2005)
- ▲국회에걸려 최우수의원 수상(1998년)
- ▲초대 납세자 친구상 수상(1999년)
-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대상 수상(2000년)
- ▲올해를 빛낸 정치인상 수상(2001년)
- ▲우수 상임위원장 수상(2007년)